

## 요시미네데라 절

요시미네데라 절은 교토 남서부, 오히라노의 녹음이 풍요로운 산중에 위치한 천태종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간사이의 사원을 순례하는 시코쿠 33 영지 가운데 한 곳으로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드넓은 경내에는 수많은 벚나무와 수국,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 연중 다채로운 색으로 변해 갑니다. 해발이 높기 때문에 교토 시가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 역사

요시미네데라 절은 속세를 떠난 조용한 곳으로 적합한 땅을 찾아 교토 남서부의 산에 들렀던, 히에이잔 산 엔라쿠지 절의 승려 겐산(983~1099년)에 의해 1029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쉬기 위해 멈춰 섰을 때 신이 나타나 이 장소에 사원을 창건하도록 계시를 내렸습니다. 바위투성이 땅에 사원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겐산의 꿈에 신이 나타나 도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한 이튿날 밤, 멧돼지 떼가 나타나 엄니로 바위를 부수고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겐산은 천수관음상을 조각하고 훗케인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당을 세워 안치했습니다. 1034년에 고이치조 천황(1008~1036년)이 나라의 재난을 진정시키고 평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도를 훗케인에서 올리라는 취지의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 '요시미네데라 절'로 개명되었습니다. 조정의 비호 아래 요시미네데라 절은 50군데 이상의 승방을 거느린 드넓은 사원이 되었습니다.

요시미네데라 절은 쇼군의 후계자 다툼이 원인이 되어 교토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오닌의 난(1467~1477년)에 의해 많은 불당과 탑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뒤 도쿠가와 막부의 제 5대 쇼군인 쓰나요시의 모친이며 교토에서 태어나 자란 게이쇼인(1627~1705년)이 여러 불당의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고, 귀중한 집기를 기증하는 등 요시미네데라 절의 부흥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원 건물은 이때에 재건된 것입니다.

## 경내

요시미네데라 절의 경내 면적은 10헥타르에 가깝습니다. 커다란 누문을 지나면 앞에 본당인 관음당이 있고, 거기서부터 경장(經藏), 가이산도(開山堂), 샤카도(釋迦堂), 야쿠시도(藥師堂) 등 산중턱의 건물들로 이어지는 길이 뻗어 있습니다.

관음당에 안치되어 있는 본존은 11세기에 만들어진 천수관음보살상으로 그 모습은 고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 도와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카도에 안치되어 있는, 역사적인 석가모니불은 요통과 신

경통 등을 완화해준다고 하는데, 불상의 효험으로서는 드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야쿠시도에는 의약의 부처님인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습니다. 게이쇼인의 양친이 이 산의 약사여래께 딸이 태어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평민의 딸이었던 게이쇼인이 쇼군의 모친이라는 가장 높은 신분까지 올라간 데서 요시미네데라 절에서는 이 약사여래를 ‘출세약사’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유류노마쓰’라고 불리는 수령 600년이 넘는 잣나무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돌계단 위에 버팀목을 따라 수평으로 뻗도록 손질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약 37m에 이릅니다. 유류노마쓰는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계절의 아름다움

경내에는 거의 일 년 내내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교토 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요시미네데라 절은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는 뽕나무 해도 벚꽃이 인기로 하쿠산벚나무수국원과 불당 주변에서는 올벚나무, 산벚나무, 천엽벚나무, 히간자쿠라 벚나무 등 수백 그루가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가장 오래된 올벚나무는 17세기 후반에 요시미네데라 절을 지원했던 게이쇼인이 심었다고 합니다. 벚꽃의 계절에 앞서 분홍색 매화가 개화하며, 벚꽃이 지면 경내 곳곳에 고운 철쭉과 커다란 모란이 피기 시작합니다.

초여름에는 정원과 경내에 수천 그루의 수국이 화려하게 피어 요시미네데라 절의 산중턱을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으로 물들입니다. 크고 둥근 수국 꽃은 참배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행복지장의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거나 정원의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해져 단풍잎이 물들면 산 한 쪽에 펼쳐지는 선명한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요시미네데라 절을 찾습니다.